

부처님 10대제자와 '오늘의 불자상'

지혜롭고 청빈하며 하심할 줄 아는 삶

부처님의 출가 제자 가운데 수행과 지혜가 특출한 제자 10인을 십대제자(十大弟子), 또는 석가십성(釋迦十聖)이라 부른다. 이들 10대 제자는 모든 불제자의 본보기로서, 불교 신행 분야마다의 바람직한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의 불자들도 이들 10대 제자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날의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지혜제일-사리불

사리불(舍利弗, Sariputta)은 회의론자였던 산자야를 따르던 외도(外道)였으나 불법에 귀의한 뒤 뛰어난 지혜로 도반들에게 능히 모든 의심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지혜제일(智慧第一)이라 칭송받았다.

흔히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혜'를 강조한다.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미혹을 밝혀 깨달음

을 완성하는 작용'인 지혜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앎'이기에 사물에 대한 단순한 앎인 지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지혜의 증진을 위해서는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수행을 통해 내면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식은 배울수록 쌓이지만, 지혜는 닦을수록 마음을 비우게 한다.

지혜가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통찰력은 깊어지고, 삶을 관조하는 여유가 생길 때 깨달음은 저절로 다가올 것이다.



그림:이준석

■ 논의제일-마하가전연

마하가전연(摩訶迦旃延, Mahakatyavana)은 논리 교묘의 깊은 뜻을 탁월한 논리로 분명히 하였으므로 논의제일(論議第一)이라 칭송받았다.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들과의 논쟁은 필수적이었다. 불자들은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하며, 정당한 논리로 남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명은 가장 큰 죄악'이라 했듯이 올바른 신행은 바른 사

교와 언행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될 때 8정도(正道)가 현실의 삶 속에서 구현된다. 기복과 미신에서 벗어나 바른 신행을 펼치는 것은 미혹을 깨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조금 불교공부를 했다고 해서 어설픈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된다. 교만은 수행의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열린 토론은 불교사회 운동과 불교학 발전의 원동력이다.



■神通제일-목건련

목건련(目犍連, Moggallana)은 사리불의 권유로 불법에 귀의한 뒤神通(神通)을 익혀 능히十方(十方)을 날아다녔으므로神通제일(神通第一)이라 불렸다. 불·보살이 갖는 초자연적인 능력인神通력은, 천안통(天眼通)·천이통(天耳通)·타심통(他心通)·숙명통(宿命通)·누진통(漏盡通)·신경통(神通通) 등 6신통으로 나뉜다.

천안통은 오늘날 카메라와 인공위성 등이 천리 밖의 일을 TV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으며, 천이통은 전화기나 무선통신기 등의 역할과 같다. 타심통은 최면술과 유사하며, 하늘을 날고 몸을 숨기는 능력이신경통은 비행기와 로켓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과학문명이神通력을 대신하므로 불자들은 오로지 깨달음을 추구할 뿐神通력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최고의神通은 '생명' 그 자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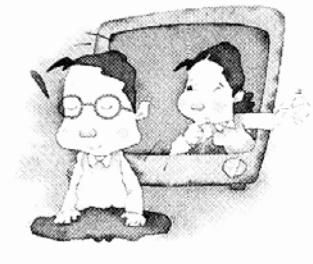


그림:이준석

■천안제일-아니울

아니울(阿那律, Anuruddha)은 부처님 설법 자리에서 졸다가 꾸지람을 들은 후,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여 천안(天眼, 心眼)을 얻어 능히 사방세계를 보았으므로천안제일(天眼第一)이라 칭송받았다. 지나친 고행으로 육체의 시력은 잃었으나 정신은 맑고 밝아 지혜의 큰 눈을 얻은 것이다.

늘날 '천안'으로 비유될 문명의 이기는 많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의 눈을 잃고 있다. 온갖 정보와 눈요깃거리가 탐욕을 부채질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지혜의 눈을 떠 자신의 마음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갖추어야 한다. 심안으로 세상을 볼 때 미혹되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다. 눈 밝은 불자들이 명안종사(明眼宗師)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은 바른 길로 굴러갈 것이다.



■두타제일-마하가섭

마하가섭(摩訶迦葉, Mahakassapa)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십이두타(十二頭陀)를 실천, 능히 고행을 견디어 두타제일(頭陀第一, 修行第一)이라 칭송받았다. 불멸 후 제1결집을 주도했으며, 선종에서 서천 28조 중 제1조사로 추앙받고 있다.

마음으로부터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인위적인 단식과 고행은 자신의 몸을 망칠 뿐이기에, 부처님은 '고통도 쾌락도 아닌'(非苦非樂)의 중도적 수행을 강조하셨다. 몸과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오늘의 불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등따뜻하고 배 부르면 수행하기 어렵다'는 큰스님들의 말씀처럼 적당한 긴장과 절제가 필요하다.



그림:이준석

■지계제일-우바리

우바리(優婆塞, Upali)는 노예 신분인 수트라 계급의 이발사 출신으로 불법에 귀의한 후 계율을 능히 잘 지켰으므로 지계제일(持戒第一)이라 불렸고, 제1결집 때 율을 송출(誦出)해 내는 역할을 맡았다.

음을 일깨웠다. 계율이 없이는 선정과 지혜도 없다. 불자들은 온갖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계를 굳건한 생활신조이자 행동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산 목숨을 해치지 않고 △수신 않는 것은 흠치지 않으며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않는 것들은 평화, 평등, 청정, 신뢰, 지혜의 바탕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공제일-수보리

수보리(須菩提, Subhuti)는 기원정사를 기증했던 수담(須達, Sudatta) 장자의 조카로, 불법에 귀의한 뒤 능히 공(空)의 도리를 체득했으므로 해공제일(解空第一)이라 칭송받았다. 그러나 공사상은 후대 대승에 와서야 성립되었으므로 본래는 은둔제일(隱遁第一)이라고 불리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실체로서의 자이는 없다'는 인공(人空),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인연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실체가 할 것이 없다'는 법공(法空)의 두 입장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받아들인 연기(緣起)와 같다. 그러나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식 공병(空病)은 경계해야 한다. 공허한 인생과 우주만물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는 '공' 사상은 현대물리학의 이론과도 일치한다. '공'을 아는 불자라면 마땅히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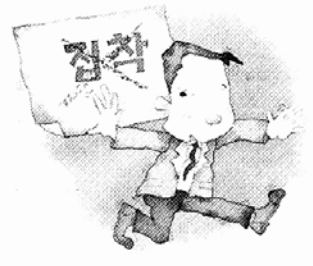


그림:이준석

■밀행제일-라후라

라후라(羅睺羅, Rahula)는 부처님의 아들로 15세에 출가(최초의 사미)한 뒤 금계(禁戒)를 범하지 않고 남이 보지 않아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밀행제일(密行第一)이라 칭송받았다.

된 관행에도 경종이 되고 있다. 은처·과계승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늘의 한국불교가 되새겨야 할 일이다. 부처님은 라후라에게 "한 번 더럽혀진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다. 사람도 올바른 지혜와 자신을 닦지 않으면 이(발 벗은) 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다"고 계율의 중요성을 설했다. 불자들은 개인적인 수행에 앞서 사회적 윤리에도 투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깨달음의 빛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설법제일-부루나

부루나(富樓那, Purana)는 수달장자의 소개로 불법에 귀의한 뒤 의리(義理)를 분별하여 설법하였으므로 설법제일(說法第一)이라 칭송받았고, 후에 고행인 수나 아라판타국에 가서 포교했다.

다운 불심을 싹트게 하는 포교법을 구사했다. 그는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목숨을 버릴 각오로 변경 포교에 입해 수나과라타에서 1년 동안 5백명의 사람들을 불교에 귀의시킨 후 입적했다.

남을 감화시키는 포교는 진실한 말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는 무설설법(無說說法)이어야만 가능하다. 스님과 불자들이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때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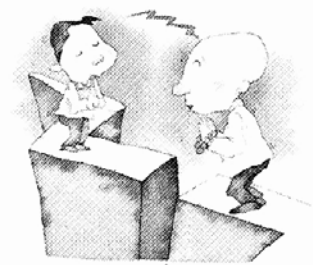


그림:이준석

■다문제일-아난다

아난다(阿難陀, Ananda)는 부처님 사촌 동생으로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듣고 기억하여 능히 잊지 않았으므로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칭송받았다. 제1결집 때 경(經)을 송출해 내었으며,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의 출가를 도왔다. 대부분의 경전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로 시작되는데, 이 '나'가 바로 아난다를 지칭한다.

아난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기억한 것은 그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처님을 진정으로 믿고 편견없는 마음으로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인 까닭이다. 많이 배웠다는 '알음알이'를 내지 않고 진정한 하심(下心)으로 스님의 말씀과 경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참된 불자라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님들의 설법을 텅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깨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김재경 기자



그림:이준석

佛紀 2544年(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佛紀 2544年(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대한불교 종단진흥회

- 대인불교진태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일승종 총무원장
-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용화종 총무원장
- 한국대승불교여래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일부선종 총무원장
- 삼학불교대학 학장
- 대인불교임제종 총무원장
-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대각종 총무원장

- 진운덕
- 김혜정
- 윤승정
- 이법덕
- 신명안
- 유청송
- 손혜인
- 박혜공
- 법선
- 석만청

- 대인불교원용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법시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해동종 총무원장
-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미타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법상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심론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심보종 총무원장
- 대인불교용애회 회주

- 최법륜
- 성원덕
- 송산
- 김지산
- 이월정
- 정법륜
- 석봉
- 송법찰
- 김무찰